

논문접수일 : 2012.12.19

심사일 : 2013.01.06

게재확정일 : 2013.01.25

제주전통 해녀복의 구성법을 응용한 가방 디자인

Bag Design Using Construction of traditional Swimsuit worn by Jeju female divers

K C I

주저자 :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ang ae-ran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김 현 미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 겸임교수

Kim hyun-mi

Cheju Halla university

* 본 논문은 2011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 2.2 제주 전통해녀복(물소중이)의 개념

3. 제주 전통해녀복의 구성법을 응용한 가방 디자인 개발

- 3.1 전통해녀복의 구성법
- 3.2 전통해녀복의 구성법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녀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 전통해녀복의 구성법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제주 해녀의 근면하고 강인함이 제주여성성을 대표하는 상징과 이미지로 정착되었기에, 제주해녀가 착용한 전통해녀복을 활용하여 브랜드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제주 해녀는 물질할 때 물적삼과 물소중이로 구성된 특이한 전통해녀복을 착용하였다. 물소중이는 옆트임에 단추(별모작)가 달려있어 입고 벗기가 편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으로 구성된 전통해녀복인 물소중이의 고유한 접는 방식이나 변형된 접는 방식을 가방디자인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음을 규명한 후 한국적 이미지의 가방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주제어

전통해녀복, 물소중이, 접는 방식, 가방디자인

Abstract

As one of Jeju Haeyeo culture contents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ew method to develop the Fashion Accessory applied construction of

traditional Swimsuit worn by Jeju female divers known as Haeyeo. Jeju Haeyeos are represented as an image of the diligent and strong woman. With such an image, they have become the symbol of Jeju female. Furthermore, Jeju Haeyeo culture will be rebranded. The Jeju female divers wore special swimsuit (Mul-jocksam(물적삼) and Mul-sojungii(물소중이) when harvesting the various sea products. The Mul-sojungii was buttoned down the right side so that it could be easily removed. Therefore, it is to review the bag design for effective item using the original or modified folding technique of Mul-sojungii, and to develop design of the bags of the Korean image by using folding technique of Mul-sojungii which is one of the unique, indigenous patterns of Jeju.

Keyword

traditional swimsuit, Mul-sojungii, folding technique, bag design

1. 서론

전통문화의 세계화가 강조된 21세기는 각국의 전통적 문화 가치가 내포된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 부문으로 문화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지적 감각과 지적재산권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원형자질이 창조 작업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 자산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전통문화와 관련된 지역문화 콘텐츠화가 지자체 실시 이후 21세기의 핵심과제가 된 것이다.(이창식, 2008)

제주도는 최근 제주를 표현할 수 있는 '제주 10대 문화상징(한라산, 해녀, 제주어, 4:3, 돌 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을 선정하였고, 그 중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녀박물관 설립 등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년 동안 제주 잠녀·잠녀문화의 전승·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09년 해녀문화의 보존 및 지원 조례가 탄생되었다. 더 나아가 2014년 제주 잠녀·잠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제주 잠녀·잠녀문화 세계화 5개년(2011~2015)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제주 잠녀·잠녀문화 목표와 정체성 수립을 위한 방향이 설정되었다. 더욱이 최근 해녀들의 해산물의 증식과 어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주인공인 해녀들의 삶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된 계기가 되었다.(고미, 2012) 그러나 아직까진 관심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주해녀문화를 이용한 콘텐츠화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착시킨다면 제주 해녀 문화정체성 확립은 물론 잠녀·잠녀문화 세계화 작업을 통해 해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검증받을 수 있으리라고 사려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 해녀 이미지의 전환이다. 즉, 김은실이 2012년에 개최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여성과 브랜드 창조 세션'란 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노동하는 여성'이란 제주 해녀의 기존 이미지를 '생태를 보존하는 자연 지킴이'란 새로운 제주 해녀의 이미지(윤형주, 2012)로 전환시킨 후 해녀문화란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사려된다. 그 이유는 해녀문화가 국제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이므로, 해녀문화의 원형보존 및 가치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재고하면서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해녀문화의 브랜드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녀문화의 브랜드 구축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쉽고 재미있게 해녀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해녀문화의 산물인 전통 해녀복의 접는 방식의 구성법을 바탕으로 패션상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해녀복의 일종인 물소중이가 한 장의 천을 직선으로 간단하게 재단하여 마름질한 후 접는 방식만으로 구성된 과학적이고 우수한 제작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통해녀복의 구성법은 일본의 종이접기(paper folding)인 오리가미와 유사하게 한 장의 종이(직물)를 이용하여 접는 방식의 제작방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리가미에 관한 선행연구(최유정, 최경화, 2009; 임소연, 이주현, 2011, 2012)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장애란, 안명숙, 1997)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 제주 해녀복의 접는 방식의 구성법 및 이를 응용한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외에도 오리가미 기법이 현대패션에서 조형적 디자인에서부터 기능적인 성능을 강조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 디자인의 영감이 되고 있지만, 해녀복의 과학적인 접는 방식이 패션디자인에 조차도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우수한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으로 구성된 전통 해녀복의 형태적 조형성 및 접는 방식을 가방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차용하여 응용함으로써 해녀문화의 브랜드 구축은 물론 제주 전통해녀복의 문화원형으로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과학적이면서도 위생적인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 제도법으로 구성된 전통해녀복(물소중이)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차적으로는 실증적 연구로 일차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원형과 현대의 융합이란 디자인 컨셉 하에 전통해녀복 특유의 접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6 작품을 실제 제작하여 제시한다. 단, 가방디자인은 전통해녀복의 접는 방식의 제작방법이 우수함을 규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고 접는 방식을 강조한 디자인으로만 제한한 점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으로 구성된 전통해녀복의 형태적 조형성 및 접는 방식을 가방디자인에도 효과적으로 차용하여 응용할 수 있음을 재 규명하고, 패션상품으로써의 가방디자인 개발을 계기로 제주 전통해녀복의 전통성 보존 및 대중화는 물론 해녀문화의 우수성과 향토문화의 수준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 해녀’(김선기, 2010)라고 불리는 나잠업자의 호칭이 역사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식민주의 및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 시대나 조선시대의 제주도에는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였다는 사실을 고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해녀라는 호칭은 발견할 수 없다. 단지 조선시대 잠수업에서 성별분업이 이루어져 잠녀라고 불리는 여성 나잠업자(裸潛業者)가 미역과 청각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였다는 기록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7세기 후반부터 제주에서는 여성들만이 나잠업을 전담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좌해경, 2005)

제주 해녀는 제주도라는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거 남성 위주의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도 존재한 일종의 직업으로, 한 가정의 일부나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김선기, 2010) 다시 말해서 제주 해녀는 제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가정경제를 이끌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으로 진출하여 제주경제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고, 또한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여성이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해녀는 강인함과 근면성, 항일정신의 상징인 제주 여성의 전형(典型)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해녀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3~4세기경으로 추측할 뿐 정확한 연대기는 아직 규명되어 있지 않고, 다만 몇 가지 기록이나 사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정도이며, 해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17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그 전에는 5세기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18년(434년), 백제본기 전지왕 5년(409년), 신라본기 헌강왕 8년(882년) 條에 따르면 “신라와 일본에도 진주가 있었다”란 기록을 보면, 바다 속에 있는 진주를 채취하기 위한 해녀들의 활동이 있었을 것이란 짐작이다.(민경희, 1964) 또 『삼국사기』 19권에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504년)에 섭라 즉 제주도에서 가(珂), 즉 진주가 생산되어 조공으로 바쳤던 것”이란 기록 등에서 6세기경 제주도를 비롯한 그 일원에 잠수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김정숙, 1990)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에서 해녀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문헌상의 첫 기록은 고려 숙종 10년(1105년)에 탐라를 군으로 개칭하면서 구당사(句當使) 윤옹균이 제

주에 부임하여 남녀 간에 나체조업금지령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그 후 조선시대인 15~17세기경 『성종실록』(1489)과 『중종실록』(1618)에서도 “그들은 본래 농업은 하지 않고 오로지 포어자생(捕漁自生)하여 제(諸) 읍(邑) 수령들이 ‘복작간(鰓作干)’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해물의 진상을 전담하였으며 특히 제주는 전복의 산지라 하여 토산물로서 전복을 진상하였다”란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민경희, 1964)

『남사록』, 『탐라계초록』 등의 해녀들이 나라에 바쳤던 공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탐라기년』의 잠녀들이 1년 내내 작업을 해도 관아에 바쳐야 하는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기록 등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전복, 소라, 해삼, 미역 등은 조선시대의 진상품이었기 때문에 해녀들의 생산 활동이란 바로 부역의 의미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여성들의 모습과 생활의 어려움과 해녀작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인조(1628~35)시대인 1629년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던 이견이 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서 볼 수 있다. 그 기록에는 남녀가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캐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남녀유별을 강조하였던 유교사회에서 남녀가 같이 물질을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특히 물소중이만을 입고 물질하는 ‘별거벗은’ 제주 해녀모습을 찬탄한 것으로 여겼음 알 수 있다.(안미정, 1998).

이상의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오늘날 해녀란 바다에서 수면 공기공급 장치나 스쿠버장비 등의 호흡장치 없이 해삼,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성 잠수작업자를 지칭하며, 잠수형태로는 지식잠수(止息潛艘, breath hold diving)가 있다. 지식잠수란 흡기 후 수분동안 숨을 참고 잠수작업을 한 후 수면으로 상승하는 잠수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48호(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009.11.4)에 의하면,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해녀’라고 정의하고 있다.(현용준, 서용건, 고계성, 2010).

2.2. 제주 전통해녀복(물소중이)의 개념

전통해녀복이란 제주 해녀가 물질할 때 입었던 작업복으로,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물소중이는 제주 특유의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물웃, 즈녀웃, 해녀복이라고도 하고, 해녀

들이 물속에서 미역이나 소라를 캐 때 착용하였다. 물소중이는 소중이와 형태가 같은 작업복이지만, 속옷의 겉옷화란 이중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견고성과 편리함이 그 특징이다. 그 외에도 옆트임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장식되어 있고, 제작방법이 합리적이어서 입고 벗기가 편리하며 다양한 용도로도 착용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해녀복은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의 『탐라계록초(耽羅啓錄草)』에 부녀자들의 나체 행동을 엄금하는 한편 잠녀들에게는 잠녀수중작업복(潛女水中作業服)인 특이한 양식의 작업복인 물소중이를 스스로 고안하여 작업 시에는 해변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착용하도록 관(官)이 명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물소중이’의 원형을 이형상 목사가 직접 고안하고 보급하여 해녀들에게 입도록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더욱이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쓰고 제주 화공(畫工) 김남길이 그린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병담범주[그림 1]에서 해녀들이 용두암 부근에서 흰색 해녀복을 입고 물질하는 모습이 묘사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강대원(1973)은 해녀복에 대해 “잠수(潛嫂)는 남색의 무명 수영복과 같은 것을 입는다. 이것은 앞에는 젓가슴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졌으나 뒷부분은 적은 띠로 십자형을 만들어 걸치고 아랫부분까지 연락되어 있다. 바가지에 망이 달려있는 뜨게와 또는 소살과 같은 꼬쟁이와 물안경을 쓰고 잠수한다. 이 안경은 그 당시 대부분 일본제를 구입해다 사용했으나 잠수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자기들이 유리를 사다 만든 것이 밝게 투명되기 때문에 훨씬 일하기가 편리하다”고 기술하고 있다.(강대원, 1973).

이와 더불어 “잠수복을 ‘무명’ 옷으로만 착용하는 이유는 다른 천은 몸에 밀착하지 않고 훌렁훌렁 하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벌마작(단추)’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도 벌마작 이외에 지퍼나 후크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쇠붙이는 짠 물에서 쉽게 녹이 슬어 못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옛날부터 메밀꽃이 필 무렵인 초가을이 되면 잠수들은 남양 쪽에서 떼를 지어 물려든 상어 떼에 의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에 흰 수건을 3척5촌 길이로 길게 늘어뜨렸으며 윗도리는 흰 저고리를 입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상어 떼가 흰 것을 멀리하여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전해 내려온 이야기 때문이라고 본다.(강대원,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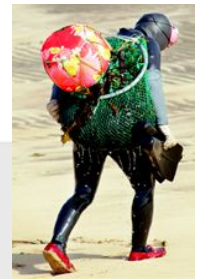
물소중이는 1700년경부터 1970년대에 고무 잠수복



[그림 1] 탐라순력도 中 병담범주(潭潭泛舟)
(출처: 탐라순력도 영인본, 2004)



[그림 2] 1960년대 해녀복 차림
(출처: 홍정표,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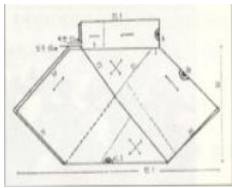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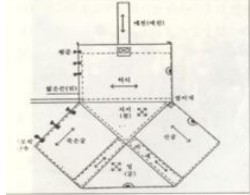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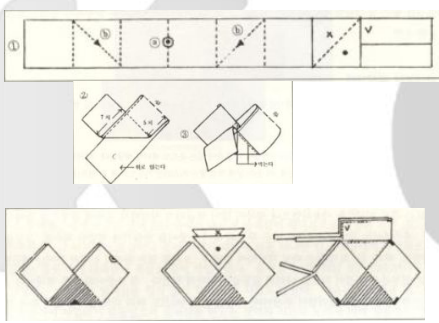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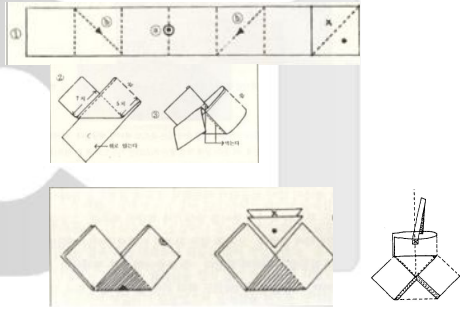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해녀의 고무잠수복 차림

이 나오기 전까지의 제주 전통해녀복으로 착용되었다. 기원은 제주 전통의 여자 하의 속옷인 ‘소중이’에 매친(어깨끈)을 보완하여 물속에 들어갈 때 입는 물옷으로 사용되면서 ‘물소중이’ 즉 해녀복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물소중이에서 시작된 해녀복은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해녀의 외형적 모습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김혜숙, 2009)[그림 2], [그림 3].

따라서 소중이에서 변형된 물소중이를 용도, 재료, 특징, 형태, 제작방법으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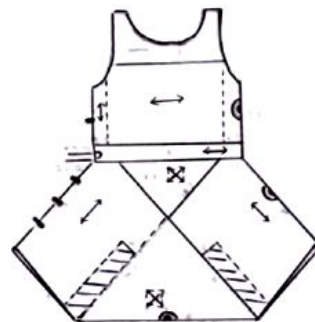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물소중이는 물옷 · 잠녀옷 이라고도 하며 해녀들이 바다 속에서 미역이나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할 때 입는 작업복으로, 내의(內衣)보다는 외의(外衣)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물소중이가 살에 직접 착용한 기능인 내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잠수작업 시에 표면(表面)에 노출되는 겉옷으로 착용한 작업복이므로 외의적인 성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녀들에게는 소중이와 형태가 같기 때문에 작업복인 물소중이가 일상복인 내의

명칭 특성	소중이	물소중이
용도	· 제주여성들의 속옷 (소: 작은 옷을 의미 / 중이: 홀옷이란 의미)	· 해녀들이 물질할 때 착용한 작업복(물옷, 줌너옷) · 속옷인 소중이의 겉옷하
재료	· 제주에서 직조한 무명(여름용:삼베, 겨울용:무명) · 해방 후 보급된 광목	· 무명 · 해방 후 보급된 광목에 검정물을 들임
특징	· 귀천을 가려 입던 속옷(兩村:속곳, 고장중이(고쟁이), 굴중이(단속곳) 착용, 浦村:소중이 착용) · 제작과정이 간편한 옷(무명의 전폭을 접기만 하여 직선으로 간단하게 재단된 마름질 / 체형에 따라 치수조절이 용이) · 활동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활동적인 옷(밀바대가 180도의 수평으로 바이어스 방향의 두 겹이 되어 착용 시 다리운동의 활동범위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음) · 실용적이고 위생적이며 견고한 옷 · 수절이나 정조를 지키기에 알맞은 폐쇄적인 옷	· 제작방법이 합리적 · 착용방법이 합리적(앞뒤가 동일, 단 관습적으로 옆트임이 오른쪽으로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옆트임이 특징적(탈착의가 용이, 품 조절이 가능한 여유의 공간, 미적인 감각) · 다양한 용도로 사용(속옷, 휴양복, 생리대 역할 등) · 옆바대, 매친, 밀바대, 옆단에 스티치 혹은 조각형감을 활용하여 장식(미적인 효과를 위해 바탕감과의 반대색을 이용한 대비효과)
형태		
	· 공통점 : 같은 형태 · 차이점 : 물소중이는 작업복이므로, 소중이보다 견고하고, 가슴을 감싸는 허리단과 어깨끈인 매친(매천)이 달린 것	
제작 방법		

[표 1] 소중이와 물소중이의 비교 (출처: 장애란, 안명숙, 1997)



[그림 4] 매친이 달린 물소중이
(출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7)



[그림 5] 조끼허리가 달린 물소중이
(출처: 김정숙, 1990)

를 작업 시 작업복으로 외의화(外衣化)하여 착용함으로써 이중 기능을 겸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소중이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는 [그림 4]와 같이 매친(매천)이 달린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 5]와 같이 조끼허리가 달린 형태로, 전자와 후자는 1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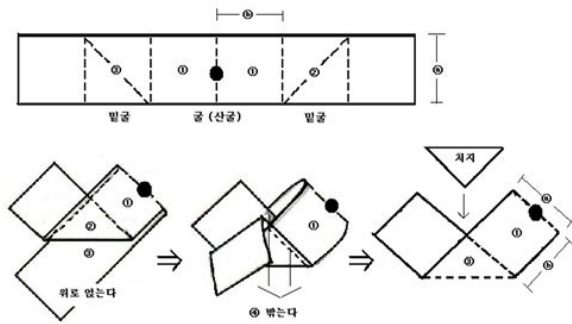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젊은 해녀들은 가슴이 보일 염려 때문에 불편하여도 물적삼을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친 보다는 조끼허리가 달린 물소중이를 많이 착용하였다.

3. 제주 전통해녀복의 구성법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개발

3.1. 전통해녀복의 구성법

전통해녀복은 제주의 가내수공업에서 만든 무명의 폭이 소중이를 만들기에 적당한 치수라서 그것을 접어서 만들고, 허리, 끈, 처지 등은 따로 재단하여 붙였다. 오른쪽 옆은 완전히 터져서 끈이나 매듭단추를 달았고 밑 부분은 두 겹이 되므로 다리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장애란, 안명숙, 1997)

따라서 제주 전통해녀복의 기본적인 구성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6] 물소중이의 구성법
(출처: 장애란, 안명숙, 1997)

물소중이의 특이한 구성법은 소중이가 무명 전폭을 직선으로 간단하게 재단하여 마름질한 후 접기만 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굴을 잡는 것이다.[그림 6] 즉, 앞과 뒤가 같은 직선으로 구성된 평면 구조로, 굴 선을 중심 굽 선으로 하여 앞뒤를 같은 크기로 접는 방법이다. 물소중이는 정해진 제도법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자 대신 이용하여 한 발, 한 뺨, 한 조리 등으로 그 길이를 가늠하였다. 여기에서 한 발은 양쪽 팔을 벌려 양쪽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한 뺨은 엄지와 중지 사이의 길이, 한 조리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따라서 물소중이의 특이한 구성법을 마름질, 접는 방식, 봉제법의 과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정인 물소중이를 위한 마름질에 대해

살펴보면, 굴의 전체 길이는 보통 한 발에 한 뺨을 더한 길이로 하고, ④의 길이는 두 뺨 정도로 하였다. ⑤부분의 길이는 대퇴부 가장 굵은 부위의 1/2로, 뚱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뺨 길이와 엄지손가락을 더한 길이로 하여(김정숙, 1990) 굴의 전체 길이와 폭에 맞추어 마름질을 하였다. 예를 들어 물소중이의 소요량을 살펴보면, 보통사람은 부리가 5치(25.7cm, ⑤)의 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마름질할 때 7치 폭의 천이 7자~9자가 필요하다. 7자인 경우는 매친이 달려있는 형태이고, 9자인 경우는 조끼허리를 단 형태의 소요량이다.(장애란, 안명숙, 1997).

두 번째 과정인 접는 방식을 살펴보면, 마름질한 천을 먼저 가운데 굴 선(●)을 굽 선으로 양쪽의 ①끼리 서로 마주보게 접는다. 다음으로 ②의 바이어스 선을 밑 굴로 하여 안쪽으로 접어 올린 후 아래쪽 ③의 바이어스선도 밑 굴로 하여 먼저 접어 올린 ②를 감싸 올려 엮음으로서 바이어스방향의 밑 굴이 두 겹으로 겹치게 된다.











세 번째 과정인 봉제법을 살펴보면, 접는 방식에 의해 두 겹으로 겹쳐진 밑 굴 부분을 ④와 같이 바느질한다. 여기에서 바느질하여 생긴 열린 공간은 완성 후 왼쪽 다리가 들어갈 바지부리 부분이 된다. 굴이 완성되면 앞뒤에 처지를 연결한 후 허리와 매친, 혹은 조끼허리를 달면 전통해녀복인 물소중이가 완성된다.

결론적으로 물소중이는 직선으로 간단하게 재단하여 마름질한 천을 접기만 하여 만들어진 매우 합리적인 제작 방법으로 구성된 기능적인 작업복이며, 무엇보다도 그 기능성의 포인트는 탈착의가 용이하고 품조절이 가능한 여유 공간을 제공해주는 옆트임이라고 할 수 있다.

3.2. 전통해녀복의 구성법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3.2.1. 가방디자인 전개

본 연구에서는 물소중이의 고유한 접는 방식이나 변형된 접는 방식의 우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방디자인을 통해 규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한 대신 가방디자인을 위한 소재에 포인트를 두었다. 즉, 작품에 사용된 소재는 캔버스 소재나 해녀문화콘텐츠적인 모티브의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출력한 캔버스 소재, 그리고 천연염색한 캔버스 소재 등 차별화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가방이란 아이템을 선택한 것은 가방이 패션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실용성은 물론 가방디자인을 통해서 개성이나 감각을 드러낼 수 있고 개개

번호	문양원본	모티브	리피트	패턴	가방디자인의 맵핑
2-1					
2-2					

[표 2] 해녀와 탐라순력도를 재해석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인의 스타일을 좌우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점차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패션소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방디자인을 전통문화원형과 현대의 융합이란 컨셉 하에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을 새롭게 조화시킨 이미지로 창출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속옷의 겉옷화한 전통해녀복의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켜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 결과를 가방디자인을 통해 위치전환 및 내용반전이라는 효과적 의미(속옷의 겉옷화->패션소품화)를 반영하고자 한다. 즉,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인 접는 방식의 구성법을 접목시켜 개발한 독창적인 방식(변형된 접는 방식)을 가방디자인에 응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주해녀문화의 대중화에 일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한 제작방법은 전통 해녀복인 물소중이의 간편하고 과학적인 접는 방식의 구성방법을 기본으로, 제주해녀문화콘텐츠적인 모티브를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개발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가방에 적용시킨 실용적인 가방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가방의 아이템은 운반하는 것에 따라 손으로 드는 클러치 백(Clutch bag), 팔에 드는 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더백, 그리고 등에 메는 룝 색(Rucksack)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김지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캐주얼하면서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이미지를 위해 토트백과 룝 색을 중심으로 가방 디자인을 하였다.

3.2.2. 가방디자인을 위한 패턴디자인

가방디자인을 위한 패턴디자인을 개발한 것은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한 대신 소재에 패턴을 삽입하여 포인트를 주기 위함이었다.

제작방법으로는 제주해녀문화에서 문화원형을 발췌한 후 현대적인 시각차원에서 콘텐츠적인 모티브를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제작도구로는 Adobe CS5(Photoshop, Illustrator)와 TexPro 디자인 캐드를 사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의 모티브는 직접 촬영한 실제 해녀의 모습 원형을 그대로 추출하여 흑백 톤으로 단순화하여 모티브로 설정한 후 1차적으로 크기에 변화를 주어 좌우대칭의 사선 배열을 하였다. 이를 또다시 좌우대칭으로 배열하였고, 이렇게 배열된 것을 상하 대칭으로 복사·반전시켜 기본 반복단위로 재구성한 리피트를 구성하였다. 이 리피트를 우측 45° 상단으로 90°회전시킨 배치를 반복한 후 이를 다음 열에는 어긋나게 패턴화한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제주의 바다 표현을 통해 강인한 해녀의 이미지를 재해석하기 위함이었다.

2-2는 제주 해녀문화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탐라순력도의 병담범주[그림 1]에서 추출하여 제주 해녀의 역사적인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없는 여백과 테두리를 과감히 삭제한 후 원형 그대로의 이미지를 기본 모티브로 설정한 후 크기에 변화를 준 다음 단순 배열을 통해 리피트를 구성하였다. 이 리피트를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런 기본반복단위로 연속 배열하여 패턴화한 것은 탐라순력도의 역사적인 기록 이미지의 재해석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쉽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3.2.3. 가방디자인의 작품제시

전통해녀복의 고유 구성법과 형태적 조형성을 기본으로, 해녀문화콘텐츠적인 모티브의 텍스타일 패턴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DTP)로 출력한 소재(캔버스)와 천연염색(쪽)한 소재, 그리고 캐주얼하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위한 기존 소재를 사용하여 제주 특유의 고유한 접는 방식과 이를 변형시킨 독창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가방디자인을 제작하였다.

(1) 고유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작품 1]은 [표 2] 2-1의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출력한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주 특유의 물소중이 접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디자인한 플랫폼의 토트백(tote bag)으로, 실용적이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디자인의 포인트는 전통문화원형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고유한 접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가죽 핸들을 달아 현대적인 이미지를 접목시킨 점이고, 가방 앞면의 접은 선은 간단한 소지품을 쉽게 수납할 수 있는 포켓으로 만들어 디테일을 돋보이게 하였다. 가방 입구의 마감은 자석버튼을 달아주어 지퍼대신 양쪽을 모아주는 기능이 되도록 하였다.

[작품 2]는 [표 2] 2-2의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프린트한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주 특유의 물소중이 접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디자인한 심플한 토트백이다. 특히 프린트된 탐라순력도의 그림을 이용한 것과 외관을 심플하게 디자인한 것은 제주해녀의 역사적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와 더불어 기능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스텐 링을 여러 개가 연결된 핸들을 달아 준 것은 디자인을 고급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작품 역시 가방 입구에 지퍼 대신 자석버튼을 달아주어 양쪽을 모아주는 마감처리를 하였다.

[작품 3]과 [작품 6]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패션아이템인 백 팩(backpack)으로, 조절이 가능한 등 벨트를 부착시킨 것과 수납공간이나 외관 디자인에 각을 살려준 것이 디자인 포인트이다. [작품 3]은 네이비 색상의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주 특유의 물소중이 접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슬림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지만, 처치와 중첩시킨 이중 입체 포켓은 네이비 캔버스 소재와 마린 스트라이프 캔버스 소재의 배색조화를 통해 포인트를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입체적인 포켓 형태를 통해 장식성과 기능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궁극적인 디자인 포인트는 전통해녀복이 탈착의가 용이하고 품 조절이 가능한 여유의 공간을 제

실제로 응용한 고유 접는 방식의 도면	
실물사진	도식화 및 맵핑
작품 1	
작품 2	
작품 3	

[표 3] 물소중이의 고유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 디자인

공해주는 옆트임을 차용하여 옆선에 지퍼를 달아 수납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작품 1]과 [작품 2], [작품 3]의 디자인은 기존 캔버스 소재와 DTP로 출력한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표 3]의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주 특유의 고유한 접는 방식의 기본구성법을 그대로 재현하여 평면적인 느낌이지만, 물소중이의 처치와 허리부분을 응용하여 차별화시키고 가방형식의 핸들과 지퍼를 활용한 디테일부분을 통해 이질적이고 대조적인 이미지의 융합,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란 개념은 물론 지역적인 특성을 조화시킨 새로운 이미지로 창안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물소중이의 밑바대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밑 부분이 180°로 바대의 부피가 넓은 점을 응용한 것은 많은 수납과 두 겹의 바닥으로 인해 견고성을 효과적으로 내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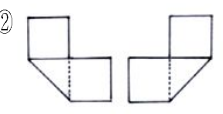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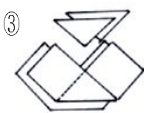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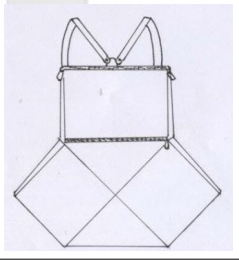
따라서 고유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제작의 도면과 작품들(실물사진과 도식화)을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2)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작품 4]는 내추럴아이보리색상의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물소중이의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한 토트백이다. 측면과 앞, 뒷면을 한 장의 소재를 둘러 이어줌으로써 입체감 및 전통해녀복의 형태적 조형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기확한 디자인 포인트로 브랜드 로고인 R과 가죽 핸들을 달아주어 실용적이면서 더욱 캐주얼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작품 5]는 [표 2] 2-1의 텍스타일 패턴을 DTP로 출력한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물소중이의 변형된 방식으로 접은 후 측면과 앞, 뒷면을 한 장의 소재를 둘러 이어줌으로써 전통해녀복의 형태적 조형성을 표현하였으며,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강인한 해녀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텍스타일 패턴이 들어간 토트백이다. 많은 수납을 위해 빅 백(Big Bag)으로 디자인하였으며, 볼륨감과 입체감을 살리기 위한 구조적인 형태를 위해 안감에 심감을 붙였다. 또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로 자석 후크를 달았다.

[작품 6]은 [작품 3]과 같이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패션아이템인 백 팩으로, 조절이 가능한 등 벨트를 부착시켰으며, 외관상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위해 각을 살린 구조적인 형태가 디자인의 포인트이다. 특히 제주 바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쪽으로 천연염색된 빈티지한 느낌의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물소중이의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하여 현대적이면서 심플하고 세련된

실제로 응용한 변형된 접는 방식의 도면	
   	
실물사진	도식화 및 맵핑
	
작품 4	
	
작품 5	
	
작품 6	

[표 4] 물소중이의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스타일로 디자인하여 입체감을 살려주었다. 여기에 처치를 포켓으로 만들기 위해 지퍼를 달아 수납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또한 가방의 입구상단에 지퍼를 달아 마무리 하였고 지퍼 마감에는 장식을 부착하여 장식성은 물론 견고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빅 백으로 디자인하여 큰 물건을 수납할 때나 여행용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작품 4]와 [작품 5], [작품 6]의 디자인도 기존 캔버스 소재와 DTP로 출력한 캔버스 소재

를 사용하여 [표 4]의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물소중이의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하여 입체감과 볼륨감을 살렸으며, 물소중이의 처치와 허리부분을 응용하여 차별화시킨 디자인과 가방형식의 핸들과 지퍼, 장식 등의 디테일 부분을 통해 전통성을 표현한 소재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조화로운 만남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제작의 도면과 작품들(실물사진과 도식화)을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결론적으로 물소중이의 구성법인 한 장의 소재를 재단하여 접는 고유한 방식을 가방 전체를 한 장의 소재로 재단되어 봉제하는 방법에 차용함으로써 편리하면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가방디자인에 접목시킬 수 있음을 재 규명하였고, 또한 물소중이의 형태적 조형성인 구조적인 형태가 외관상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가방의 조형적 표현에 활용될 수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해너복의 구성법을 현대적이고 모던한 가방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요소의 현대적 해석은 물론 새로운 스타일과의 접목·융합시킨 차별화된 가방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접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으로 구성된 전통 해너복의 형태적 조형성 및 접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응용한 가방디자인의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해너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은 물론 제주의 해너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과학적이면서도 위생적인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의 제도법으로 구성된 해너복(물소중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일차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해너복의 특유의 접는 방식 제도법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6 작품(토트백과 백팩을 중심으로)을 실제 제작하여 제시한 결과,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으로 구성된 전통해너복의 형태적 조형성 및 접는 방식을 가방디자인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차용하여 응용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웃, 즈너웃, 해너복이라고도 하는 물소중이는 제주 특유의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너

들이 물속에서 미역이나 소라를 켈 때 착용하였던 작업복이다. 물소중이는 소중이와 같은 형태이지만 작업복으로, 속옷의 겹옷화란 이중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견고성과 편리함, 옆트임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점, 다양한 방법으로 장식된 점, 제작방법이 합리적이어서 입고 벗기가 편리한 점,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도 착용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둘째, 물소중이의 특이한 구성법은 소중이가 무명의 전폭을 직선으로 간단하게 재단하여 마름질한 후 접는 방식으로 굴을 잡는 것과 유사하다. 즉, 앞과 뒤가 같은 직선으로 구성된 평면 구조로, 굴 선을 중심 굽 선으로 하여 앞뒤를 같은 크기로 접는 방법에서 과학적인 제도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재 규명할 수 있었다.

셋째,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원형과 현대의 융합이란 디자인 컨셉 하에 전통 해너복인 물소중이의 간편하고 과학적인 접는 방식의 구성방법을 기본으로 제주해너문화콘텐츠적인 모티브를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개발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삽입한 가방을 실제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즉, 제주해너문화콘텐츠 과정에서는 제주해너문화에서 문화원형을 발췌한 후 현대적인 시각차원에서 콘텐츠적인 모티브를 유추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Adobe CS5(Photoshop, Illustrator)와 TexPro 디자인 카드의 제작 도구를 사용하여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을 DTP로 출력한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해너복 특유의 접는 방식 제도법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한 가방디자인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물소중이의 구성법인 한 장의 소재를 재단하여 접는 고유한 방식을 가방 전체를 한 장의 소재로 재단되어 봉제하는 방법에 차용함으로써 편리하면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가방디자인에 접목시킬 수 있음을 재 규명하였고, 물소중이의 형태적 조형성인 구조적인 형태가 외관상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가방의 조형적 표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해너복의 구성법을 현대적이고 모던한 가방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요소의 현대적 해석은 물론 새로운 스타일과의 접목·융합시킨 차별화된 가방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접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 특유의 고유양식인 접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가방디자인은 평면적인 형태인 반면, 변형된 접는 방식을 응용한 디자인은 입체적일뿐만 아니라 접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가방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테크닉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통해녀복인 물소중이를 속옷의 겉옷화란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켜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패션 관광 상품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작품을 토대로 전통문화원형을 응용한 제주 관광 상품 개발의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영세한 제주 패션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대원 (1973). 『해녀연구』 개정판. 서울 : 한진문화사.
- 김선기 (2010). 제주 해녀의 일본 진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일어문논문집』, 14, 189. (일반적으로 알려진 호칭이지만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인 행정용어로서 잠수(潛嫂) 또는 잠녀(潛女)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상 일반적인 호칭인 제주 해녀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김정숙 (1990). 제주도해녀복연구. 『탐라문화』, 10, 64, 109.
- 김지수 (2010). 「전통조각보의 배색을 모티브로 한 현대적 가방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9). 「제주해녀의 삶을 투영한 도자조형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희 (1964). 한국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 『梨大史苑』, 5, 86-89.
- 윤형주 (2012. 6. 2). “새로운 인식 속에서 제주의 브랜드 만들어야”.
<http://www.jemin.com/news/articlePrint.html?idxno=287830>
- 신금자 (2008). 「주름기법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연구-스모킹 기법을 중심으로」,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 (2008).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서울 : 역락.
- 임소연, 이주현 (2011).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조형적 의류디자인 연구-릭 오웬스, 다미르 도마, 하이더 아커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2), 27-34
- 임소연, 이주현 (2012). 오리가미 원리에 기반한 평면에서의 의복 조형 디자인 연구-고대 복식 원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1), 1-11.
- 장애란, 안명숙 (1997).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의

상디자인. 『탐라문화』, 18, 331-349.

-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4). 『만능 홍정표 선생 사진전 - 제주사람들의 삶 II』, 25.
- 제주도자연사박물관 (1997). 『제주도 자연사박물관』.
- 제주시장 (2004). 『탐라순력도 영인본』. 서울 : 로알프로세스.
- 좌혜경 외 (2005). 『제주 해녀와 아마』. 서울 : 민속원.
- 최유진, 최정화 (2009). 오리가미의 표현기법이 나타난 현대패션 디자인의 표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4), 1-10.
- 고미 (2012.8.6). 해녀 유네스코 등재 ‘부품꿈’ 관심이 우선. <http://www.jemin.com/news/articlePrint.html?idxno=283871>
- 현홍준, 서용건, 고계성 (2010). 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탐라문화』, 37, 490.